

종교철학 분야와 대순진리회의 연구 주제들

고 병 철 *

■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종교철학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내용은 종교철학과 그 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철학의 학문적 위치와 특징 및 주요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는 부분, 그리고 종교철학 영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동일한 현상일지라도 다른 학문 분야 또는 여러 학문 분야를 적용했을 때 연구 주제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관점을 토대로 실제로 종교철학의 여러 연구 주제들을 토대로 대순진리회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종교철학 분야의 신관, 인간관, 세계관과 관련된 대순진리회의 연구 주제들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연구 주제들을 개발할 때 종교철학의 학문적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여기서 학문적 특성은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보조하는 호교론적 태도가 아니라 종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를 말한다.

향후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은 종교철학뿐만 아니라 종교

*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03250@aks.ac.kr

학의 여러 하위 분야들을 통해서도 개발될 수 있다. 물론 종교 관광이나 종교 언어 등 주제별 접근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대순진리회, 종교철학, 신관, 인간관, 세계관, 종교학

I. 들어가면서

II. 종교철학의 학문적 위치와 특징

III. 종교철학의 주요 주제들과 믿음체계

IV. 종교적 믿음체계와 관련된 대순진리회의 연구 주제들

V. 나오면서

I. 들어가면서

이 글의 목적은 종교철학(philosophy of religion)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동일한 현상일지라도 다른 학문 분야 또는 여러 학문 분야를 적용했을 때 연구 주제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진대학교에 ‘대순종학대학’이 있고 그 안에 ‘대순종학과’가 있듯이, 지금까지 대순진리회 연구는 종학(宗學)이라는 명칭 아래 진행되고 있다.¹⁾ 그렇지만 종학의 방향이 강조될수록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점차 제한될 수밖에 없다. 종학의 방향이 강조될수록 연구 주제들이 종학의 경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²⁾ 흥미롭게도 이러한 지점은 오히려 종학의 방향과 다른 학문 분야에서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순진리회의 경우는 증산 상제라는 초인간적 또는 신적 존재를 믿

1) 대진대학교 대순종학대학(<http://www.daejin.ac.kr/contents/www/cor/campanology.html>, 접속: 2021.11.6.).

2) 이는 기독교 신학의 연구 주제들이 신학에서 공유된 특정 방향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과 유사하다. 기독교 연구도 ‘신학’이라는 명칭 아래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개신교계 대학이나 가톨릭대학교 등도 ‘신학과’를 두고 있다.

고 있고, 사실상 현실 인식부터 시작해 이상세계론까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신론적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신론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철학의 주제들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에 종교철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이나 여러 연구 주제들이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논문 목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대순진리’라는 표현으로 검색하면 2021년 2월까지 약 440건의 국내학술논문 목록이 보인다.³⁾ 여기에서 동일 논문들을 제외하고 다시 정리하면 모두 379건의 논문 목록이 추출된다.

이 선행연구들의 주류는 대체로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설명하는 경향이다. 실제로 전체 379건의 선행연구에서 교리를 다룬 사례는 263건으로 약 69%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종교철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이나 연구 주제들이 담긴 사례는 많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 연구와 관련하여 종교철학의 여러 주제들과 그 학문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발굴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관련 연구 주제들에 대한 모색의 계기가 된다.

이 글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철학과 그 주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첫 번째는 종교철학의 학문적 위치와 특징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종교철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종교철학 영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index.do>, 접속: 2021.8.5.)

II. 종교철학의 학문적 위치와 특징

첫 번째로 종교철학의 학문적 위치와 특징 부분이다. 종교철학의 학문적 위치는 신학·철학이나 종교학과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종교철학을 신학에서 독립시키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신학 내의 종교철학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철학적으로 변호하는 ‘종교적 철학화’ 또는 이성에 기초한 자연신학적 작업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철학 내의 종교철학에 대해서는 종교적 가르침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종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차적 또는 후속적인 연구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은 존히크(John Hick, 1922~2012)이다.⁴⁾

다음으로, 종교철학과 종교학을 구분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 종교학과 종교철학은 각각 종교현상을 기술(describe)하는 학문과 종교현상을 설명(explain)하는 학문에 해당한다. 종교학이 종교현상을 있는 그대로(as they are) 관찰·이해·기술한다면, 종교철학은 종교현상이 가진 근본적인 전제조건을 파헤치고 그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준을 따지고 각기 다른 설명 간의 정합성을 추구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은 황필호(1937~2016)이다.⁵⁾ 다만, 이 견해에서 종교학에 대한 규정이 협소하여 종교학자들이 이 견해를 얼마나 긍정할지 알 수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논의는 종교철학의 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아래 진행됐다. 다만, 여기서 종교철학의 특성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종교철학을 신학과 구분하려는 견해는 종교철학이 특정 종교를 위한 또는 호교론적 학문이 아니라는 학문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종교학에서는, 비록 종교철학에 대해 전통적으

4) 존 H. 히크, 『종교철학』, 김희수 옮김 (서울: 동문선, 2000), pp.11-12.

5) 황필호, 「종교철학은 무엇인가」, 『서양종교철학산책』 (서울: 집문당, 1996), pp.201-204.

로 신학적 주제들과 친연성(親緣性)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 종교철학을 신학에서 탈피시키려는 논리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종교철학과 종교학을 구분하려는 견해에는 종교철학의 학문적 특성보다 종교철학을 철학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종교철학은 철학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⁶⁾ 마치 종교사회학이 사회학 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오히려 종교철학이 ‘전략적으로’ 철학보다 종교학에 포함될 때 학문적 방향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철학 연구자들 일부가 신학과 구별되는 종교철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존 혁의 전제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종교철학은 종교학에 포함될 때 학문적 특성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종교철학이 종교학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학 영역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종교학에서 연구 대상과 방법론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실제로 종교학에서 연구 대상을 ‘종교 현상’이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종교 현상의 개념 정의부터 단일하지 않고, 연구 대상도 종교 관련 역사, 의례, 체험, 조직, 언어, 생활, 믿음체계 등 종교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포괄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도 19세기 후반 이후 비교(comparison)에서 시작해 1950년대 이후 방법론 논쟁을 거쳐 다양해지고 있다.⁷⁾ 게다가 종교

6) 황필호는 1985년 가을 철학연구회 정기발표회가 ‘종교철학이 한국의 철학계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황필호, 앞의 글, p.181).

7) 브리태니커(<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Max-Muller>, 접속: 2021.8.5.). 다만, 비교종교 연구는 식민적·오리엔탈리즘적 기획이라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비판을 받는다. 그 내용은 종교적 전통들의 유사성을 강조해 차이를 최소화하고 종교 현상을 본래의 맥락에서 고려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비교의 목적이 비교 행위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비교 기획의 4 과정(four moments: description, comparison, redescription, and rectification)을 제시해(『In Comparison a Magic Dwells』, p.239.), 비교의 교정 가능성을 포함한다. (David M. Freidenreich, “Comparisons Compared: a Methodological Survey of Comparisons of Religion from ‘A MAGIC DWELLS’

학의 하위 분야에는 종교철학 외에도 종교사학, 종교현상학, 종교사회학,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비교종교학 등이 있고, 넓게는 개별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학, 불교학, 이슬람학, 무속학, 종학(宗學) 등⁸⁾도 포괄될 수 있다. 특히 종교학 내에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있다는 것은 종교학 영역에서 종교철학의 핵심적 위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철학이 철학보다 종교학의 하위 분야에 위치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종교학에서는 존 힉이 종교철학에 대해 언급한 ‘종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차적 또는 후속적인 연구 활동’이라는 방향성이 허용된다. 그리고 종교철학의 방법론은 특정 종교를 위한 신학·교학을 포괄해서 상호 비교·대조하는 종교학 방법론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종교철학이 믿음체계와 그 논리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환원주의적 접근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 외에 다종교사회에서 종교 간 유사성과 차이에 따른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종교 소속 연구자들이 종교연구자가 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현상도 종교철학이 철학보다 종교학의 하위 분야에 위치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종교학의 연구 대상이 종교 현상이라면, 종교철학은 종교 현상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의 논리체계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현대 종교철학자들은 철학이 ‘믿음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종교철학은 그 가운데에서도 ‘종교적 믿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고 본다.⁹⁾ 존 힉도 종교철학에서 여러

to ‘A MAGIC STILL DWELLS,’ *Method &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Vol. 16, No. 1 (2004), pp.80-101.

8) 위키(<https://ko.wikipedia.org/wiki/%EC%A2%85%EA%B5%90%ED%95%99>, 접속: 2021.7.16.).

9) 마이클 피터슨·월리엄 헤스커·브루스 라이헨바하·데이비드 배싱어, 『종교의 철학적 의미』, 하종호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p.22-23. 이 책의 원제는 Michael Peterson, William Hasker, Bruce Reichenbach, and David Basinger, *Reason and Religious Belief*(Oxford University Press, 2003)이다.

종교의 개념들과 믿음체계, 그리고 이러한 믿음체계들의 기초와 모체가 되는 종교체험 이전의 현상들과 예배 및 명상행위에 대해 연구한다고 설명한다.¹⁰⁾ 실제로 종교철학에서는 믿음체계와 관련된 ‘신 존재’나 ‘신정론’ 등 세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종교철학의 여러 연구 주제들은 신학과의 친연성 때문에 상당 부분 특히 유신론에 입각한 종교와 연관성을 갖는다. 이 부분은, 종교철학의 한계일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종교철학의 여러 연구 주제들이 대순진리회를 포함해 유신론의 경향을 가진 한국 종교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대순진리회의 사례에 종교학의 연구 주제들을 적용하면 대순진리회의 역사, 의례, 체험, 조직, 언어, 생활, 믿음체계 등에 대한 연구 주제들이 발굴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종교철학의 여러 연구 주제들을 적용하면 특히 믿음체계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발굴될 수 있다.

Ⅲ. 종교철학의 주요 주제들과 믿음체계

두 번째로, 종교철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연구 주제들 부분이다. 종교철학의 주요 연구 주제들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온라인 철학자 공동체에서는 주요 주제를 ‘신(God)의 다양한 개념들, 신성(deity or deities)의 존재, 종교적 신념의 합리성, 종교적 교리의 신학적 주장들, 죽음 이후의 삶(life after death)에 관련된 물음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¹¹⁾ 스탠포드 철학백과의 종교철학(philosophy of religion) 항목을 보면, 종교철학의 주제는 ‘① 종교 정의, ② 종교적

10) 존 H. 히, 앞의 책, pp.11-12. 이 글에서는 ‘신앙체계’라는 번역어를 ‘믿음체계’로 통일한다.

11) philpapers(<https://philpapers.org/browse/philosophy-of-religion>, 검색: philosophy of religion).

믿음들의 의미, ③ 종교적 인식론(religious epistemology), ④ 종교와 과학, ⑤ [유]신론과 대안들, ⑥ 종교적 다원론' 등 크게 여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¹²⁾

존 히크는 자신의 저서를 서론을 제외한 11개 장으로 구성하면서 11개의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11개 주제는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의 신 개념,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들, 신의 존재에 반대하는 논증들, 악의 문제, 계시와 믿음, 증거주의·근원주의·합리적 신앙, 종교언어의 문제, 입증의 문제, 제 종교들의 상충되는 진리 주장, 인간의 운명: 영혼 불멸성과 환생, 인간의 운명: 업보와 윤회' 등이다.¹³⁾ 물론 존 히크가 신 존재의 반대 논증 부분에 종교사회학과 프로이트 이론 등을, 입증의 문제 부분에 종말론 등을, 영혼 불멸성과 환생 부분에 초심리학을, 업보와 윤회 부분에 비신화화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주제에 따른 세부 주제들은 더욱 다양하다.

황필호의 경우에는 종교철학의 주요 주제를 전부 기술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지식과 신앙, 이성과 계시, 철학과 종교의 관계, 신의 존재와 속성, 죽음과 내세의 문제, 종교 언어의 문제, 종교 간 대화의 문제 등'을 주요 주제로 제시한다.¹⁴⁾ 종교 간 대화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해 보이지만, 이 부분은 존 히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구 주제들이 다양하다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존 히크의 경우에는 자신의 독특한 전

12) 스탠포드 철학백과(<https://plato.stanford.edu/entries/philosophy-religion>). 신론과 대안들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는 신적 속성들(Divine Attributes)과 신의 존재(God's Existence)인데, 전자에서는 전지전능(Omniscience)과 영원성(Eternity)과 신의 선함(The goodness of God), 후자에서는 존재론적·우주론적·목적론적 논의(Ontological·Cosmological·Teleological arguments)와 악의 문제(Problems of evil)와 악과 더 큰 선(Evil and the greater good)과 종교적 경험(Religious experience) 등이 거론된다.

13) 존 H. 히크, 앞의 책. 이 책(Philosophy of Religion)은 1963년 초판, 1973년 제2 개정판, 1983년 제3 개정판, 1990년 제4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14) 황필호, 앞의 책, pp.204-206.

체를 토대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존 힉은 ‘위대한 종교들인 경험적 뿌리에서 동일한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그 전제 위에서 각기 다른 문화에 의한 사고방식이 작용하면서 그 절대자에 대한 경험이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하나가 되어 버린 오늘날의 세계에서 종교들이 상호간 관찰과 대화를 통해 의식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교·불교·이슬람교·힌두교 같은 명칭들이 더 이상 그 때의 종교적 경험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여러 종교들이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북미나 유럽에서 그리스도교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교파 같은 형태를 띠 것’이라고 전망한다.¹⁵⁾ 그렇지만 모든 종교연구자들이 이러한 존 힉의 전제와 전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철학의 주제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시한 경우도 있다. 미국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의 철학 교수인 마이클 피터슨(Michael L. Peterson) 등은 그들의 저서에서 종교철학의 주제들로 ‘종교의 정의, 종교적 경험의 유형과 공통의 핵심이나 구조(종교적 경험이 종교적 믿음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이성적 평가의 허용 여부, 신의 속성들, 신의 존재 입증, 악의 문제와 신의 존재 반론에 대한 방어 및 신정론, 신의 세계 관여와 그 방식, 신의 세계 개입으로서의 기적, 내세와 영혼의 개념, 종교 언어(신에 관한 발언), 종교와 과학의 양립 가능성, 종교들 간의 차이에 대한 접근 방식들, 그리고 종교 윤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이상에서 서술한 종교철학의 여러 주제들을 관통하는 부분은 ‘믿음 체계’이다. 마이클 피터슨 등에 따르면, 종교철학에서 종교적 믿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¹⁷⁾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15) 존 H. 힉, 앞의 책, pp.214-215.

16) 마이클 피터슨·윌리엄 해스커·브루스 라이헨바하·데이비드 배싱어, 앞의 책; 마이클 피터슨 자료 참조: 애즈베리신학교(<https://asburyseminary.edu/faculty/michael-peterson>, 접속: 2021.11.6.).

종류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믿음체계’라고 표현된다.

<표 1> 종교적 믿음의 종류와 사례

번호	믿음의 다섯 가지 종류	사례
1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믿음	죄(유대교와 기독교), 윤회(힌두교), 가사성(可死性, 도교)
2	그 곤경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믿음	구원, 해탈
3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 초월자가 존재한다는 믿음	궁극적 실재자, 신, 브라만, 열반
4	이 ‘초월자’를 특정 방식으로 알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	경전, 무당
5	구원이나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	신앙을 갖거나, 명상에 잠기거나, 이슬람의 다섯 의무를 준행하는 것

종교철학과 달리, 종교심리학이나 종교사회학 등에서는 종교적 믿음체계들의 의미, 일관성, 설명적 적합성 등에 관해 거의 묻지 않는다. 그에 비해 종교철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요 관심사로 다룬다.¹⁸⁾ 물론 믿음체계를 관통하는 핵심 용어가 ‘신’처럼 보일지라도, 신도 결국 국 믿음의 대상이기에 종교철학에서 핵심은 ‘종교적 믿음체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종교철학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믿음체계와 관련된 세부 주제들을 철학 영역을 구성하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적 차원¹⁹⁾과 연관시켜 논의한다. 다만, 종교철학에서 ‘종교적 믿음’과 관련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적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현실이 유일신론,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의 유일신론을 배경으로 한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한계가 될 수 있다.

17) 같은 책, pp.20-21.

18) 같은 책, p.21.

19) 철학을 구성하는 영역의 주요 물음은 ‘무엇이 존재하는지(ontology), 무엇을 알 수 있는지(epistemology, 지식·인식), 무엇을 해야 하는지(axiology, 가치)’ 등이다.

IV. 종교적 믿음체계와 관련된 대순진리회의 연구 주제들

세 번째로, 종교철학 영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 부분이다. 앞서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379건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로 다루어지는 교리의 내용은 4가지의 종지(宗旨), 7가지의 신조(信條: 四綱領+三要諦), 3가지의 목적(目的), 4가지의 수도(修道), 5가지의 훈회(訓誨)이다.²⁰⁾ 이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수치와 비율은 용어들이 중복된 경우들을 포함한다.

〈표 2〉 학술논문에서 핵심 교리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

상위	종지				신조								목적					수도				계
					사강령				삼요체													
하위	음양 합덕	신인 조화	해원 상생	도통 진경	안심	안신	경천	수도	성/ 誠	경/ 敬	신/ 信	무자기	정신 개벽	지상 신선	인간 개조	지상 천국	세계 개벽	공부	수련	기도	주문	
빈도	10	11	15	12	11	11	9	17	28	25	28	15	15	14	13	14	12	0	0	1	2	263

20)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4가지 종지(宗旨)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 사강령(四綱領)은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는 성(誠)·경(敬)·신(信), 3가지 목적(目的)은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闢), 4가지 수도(修道)는 공부(工夫, 지정된 시공간)·수련(修鍊, 지정되지 않은 시공간)·평일기도(平日祈禱)·주일기도(主日祈禱), 그리고 5가지 훈회(訓誨)는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착(慙)을 짓지 말라, 은혜(恩惠)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 되게 하라'로 구성된다.

위의 표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 이상의 용어를 제목에 포함시킨 경우들이 있더라도, 선행연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핵심 교리와 관련된 용어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하위 용어는 삼요체와 관련된 성·경·신이고, 다음으로 목적과 관련된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인간개조, 지상천국-세계개벽 등이다. 그에 비해, 수도와 관련된 공부, 수련, 평일기도, 주일기도 등의 용어를 제목에 노출시킨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편, 상위 용어들이 제목에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종지 10건, 신조 8건, 강령 2건, 요체 7건(이 중 삼요체 5건), 목적 6건, 수도 17건 등이다. 그 외에 ‘개벽’(33건), ‘수행’(10건), ‘인존’(5건) 등의 개념어들을 제목에 포함시킨 사례들도 보인다.

둘째, 교리 관련 용어들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 외에도, 선행연구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가 ‘사상’으로 전체의 약 23%(88건)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는 대순사상 외에도 인존사상, 도통진경사상, 정치사상, 사회사상, 변혁사상, 신인조화사상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대순사상’으로 전체 379건의 약 15%(56건)를 차지한다. 즉 종지에 대해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사상들의 상위 범주로 ‘대순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대체로 ‘종지나 신조’에 국한되어 ‘교리’에 치중된 선행연구들의 경향은 교리 관련 연구 외에도 다른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서 종교철학의 여러 연구 주제들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교철학 내에서 어떤 주제들이 대순진리회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관심을 갖거나 개발하는 주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향후 연구자들이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교철학의 주요 연구 주제들과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예

시로 제시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철학의 주요 주제들은 크게 신앙대상을 정점으로 하는 믿음체계와 관련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순진리회의 경우에도 신앙대상과 그에 대한 믿음체계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해, 대순진리회 내부에서 대순사상의 구성 요소를 ‘신관, 인간관, 세계관’으로 제시한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²¹⁾ 만약 이러한 틀을 믿음체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대순진리회의 신관, 인간관, 세계관은 종교철학의 연구 주제들과 연결된 것이다.

실제로 대순진리회의 신관, 인간관, 세계관과 관련해 선행연구들도 있다. 신관의 경우에는, 이미 2013년에 대진대학교 대진학술원에서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이라는 기획 주제들을 설정한 바 있다.²²⁾ 종교학 분야에서도 신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²³⁾ 인간관의 경우에는 종교학 분야에서 연구된 바 있다.²⁴⁾ 그리고 세계관의 경우에는 생사관, 후천개벽 세계관, 지상신선 세계관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²⁵⁾

그렇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신관, 인간관, 세계관에 대한 연구 주제들을 좀 더 다양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관의 경우에는 상제의 속성들, 상제가 세계에 관여하는 방식, 상제의 세계 개입 방식과 기적, 악의 문제와 신정론²⁶⁾ 등 상제의 존재와 역할 등과

21)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4), pp.115-135.

22) 『대순사상논총』 21 (2013)에 실린 논문들은 「대순진리회 신관념의 특성」(윤용복),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1):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차선근), 「구천응원부성보화천존 신앙 연구」(리웬구어)이다.

23)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어느 종교학자가 본 한국의 종교교단』 (서울: 박문사, 2017), pp.413-447.

24) 박선영, 「대순진리회의 인간관과 인격교육의 성격: 한국종교사와 인간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대순사상논총』 14 (2002), pp.381-405;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인간관」, 『대순사상논총』 28 (2017), pp.1-34.

25)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pp.35-59; 쩡쯔밍, 「『전경』에 나타난 대순사상의 생사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pp.79-132;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 세계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pp.1-34; 민병삼,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7 (2016), pp.35-77.

그 외의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인간관의 경우에는 종교 언어와 인식(상제에 관한 발언), 종교 윤리, 종교 경험의 유형과 구조, 종교 경험과 믿음의 관계 등과 그 외의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 세계관의 경우에는 내세관, 영혼관, 경전과 세계관 등과 그 외의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종교 간 대화, 종교 행위나 의례의 의미 등 다른 주제들의 개발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을 혼합해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할 것이다.

V. 나오면서

종교철학적 주제들의 범위를 고려하고, 아울러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검토해보면, 그동안 대순진리회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은 고리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정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철학 내의 연구 주제들만 고려해도 향후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종교철학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연구 주제들을 토대로 대순진리회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교철학 내의 연구 주제들을 활용하는 데에서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할 부분이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보조하기 위한 호교론적 태도를 벗어나, 종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종교철학 내의 연구 주제들을 활용한 대순진리회의 연구는 연구 주제들과 관련된 특정 종교의 자료들과 그에 대한 사유의 ‘공개성’을 전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

26) 차선근, 「대순진리회에서 신정론 문제」, 『대순사상논총』 33 (2019), pp.257-286.

한 현상은 종교철학 내의 연구 주제들이 기본적으로 대순진리회의 특히 믿음체계와 관련된 자료와 사유를 공개적으로 논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공개성을 위해서라도, 특히 유신론적 전통에서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종교철학자들에게 비판이 가해지듯이, 호교론적 태도에 함몰(陷沒)되지 않는 연구 태도가 요청된다.

이 글에서 대순진리회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을 개발하는 데에 종교사회학이나 종교심리학 등의 분야보다 종교철학 분야의 주제들을 먼저 다룬 것은 종교철학이 호교론적 태도를 피한다면 종교적 논리 자체로 종교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종교단체 연구자들에게 친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향후 종교철학 외에도 종교사학·종교사회학·종교심리학·종교현상학·종교경제학 등 종교학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관광 등 여러 부분과 연관된 영역을 참조한다면 대순진리회에 관한 연구 주제들이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어느 종교학자가 본 한국의 종교교단』, 서울: 박문사, 2017.
-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인간관」, 『대순사상논총』 28, 2017.
-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4.
- 리웬구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 마이클 피터슨·윌리엄 해스커·브루스 라이헨바흐·데이비드 배싱어, 『종교의 철학적 의미』, 하중호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민병삼,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7, 2016.
- 박선영, 「대순진리회의 인간관과 인격교육의 성격: 한국종교사와 인간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대순사상논총』 14, 2002.
- 윤용복, 「대순진리회 신관념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21, 2013.
- _____,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 세계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 쨍쨍밍, 「『전경』에 나타난 대순사상의 생사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 존 H. 히, 『종교철학』, 김희수 옮김, 서울: 동문선, 2000.
-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1):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 _____, 「대순진리회에서 신정론 문제」, 『대순사상논총』 33, 2019.
- 황필호, 「종교철학은 무엇인가」, 『서양종교철학산책』, 서울: 집문당, 1996.
- Freidenreich, David M., "Comparisons Compared: a Methodological Survey of Comparisons of Religion from 'A MAGIC DWELLS' to 'A MAGIC STILL DWELLS'," *Method &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Vol. 16, No. 1, 2004.
- Peterson, M., Hasker, W., Reichenbach, B., and Basinger, D., *Reason and Religious 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hilpapers(<https://philpapers.org/browse/philosophy-of-religion>)

대진대학교(<http://www.daejin.ac.kr>)

브리태니커(<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Max-Muller>)

에즈베리신학교(<https://asburyseminary.edu/faculty/michael-peterson>)

스탠포드 철학백과(<https://plato.stanford.edu/entries/philosophy-religion>)

위키(<https://ko.wikipedia.org/wiki>)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index.do>)

■ Abstract

**Daesoon Jinrihoe's Research Theme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Ko Byoung-chul

Senior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research topics related to Daesoon Jinrihoe (大巡眞理會)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The main content to achieve this purpose consists of three parts: the academic 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hilosophy of religion, the main research topic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and the research topics on Daesoon Jinrihoe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view that topics from multiple disciplines can promote new academic researches while making even the surrounding phenomena unfamiliar. According to this point of view, the research topics related to Daesoon Jinrihoe can be diversified through the topics of the philosophy of religion including the perspective of god, human beings, and the world.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Daesoon Jinrihoe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should be maintained when researchers suggest their research topics. In this regard, its characteristic refers to 'the attitude of objectively observing and analyzing religion, not the attitude of apologetics to support a specific religious teaching.'

In the future, the research topics related to Daesoon Jinrihoe can be discovered not only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but also in various sub-fields of religious studies. Furthermore, the topics can be developed through thematic approaches including religious tourism or religious languages.

Keywords: Daesoon Jinrihoe, philosophy of religion, view of god, view of human beings, worldview, religious studies.